

# 하이퍼텍스트 문명 선도할 전자 백과사전

디지털문명과 백과사전의 미래...  
독자의 사고와 읽기 유형 변화시킬 것

장덕현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미래의 백과사전은 하이퍼텍스트에 기반을 둔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전자 백과사전이 가격 경쟁력과 색인의 세밀함이나 상호참조의 활용성에서 종이 백과사전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구현하는 전형적 매체로 자리잡을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는 방사형 구조와 시공간의 초월성 때문에 독자의 사고와 읽기 유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나는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네그로폰테의 저서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백옥인, 커뮤니케이션북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이 고백은 사뭇 도전적이기도 하거니와, 이른바 디지털 시대 읽기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도 하다. 그는 어린 시절 오로지 열차시간표를 보며 그 속에 나와 있는 유럽의 도시들을 연결(connect)하는 상상으로 독서를 대신했다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디지털세상의 글읽기는 이제 필요한 키워드들에 대한 하이라이트, 그리고 다른 정보원로의 연결고리(connection), 즉 하이퍼링크(hyperlink)가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를 지루하고 불편하게 여길 뿐이다.

나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내 기억 속에 존재하는 최초의 읽을거리는 모 출판사의 《어린이학습대백과사전》이었다. 나 역시 글자로 가득 찬 동화책이 지루하다고 느꼈을까? 어린 시절 나는 천연색의 사실화가 가득한 백과사전을 한권씩 통독하며, 가령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라이거(liger)라는 새로운 종(hybrid)의 동물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신기해했다. ‘백과사전’이라는 ‘참고정보원’에서 무언가를 ‘검색’한다는 개념은 내 머리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백과사전은 그냥 ‘읽을거리’였으며, 그 속의 신기한 세상을 구경하는 재미에 빠져 ‘가’로 시작하는 첫번째권부터 차례차례 백과사전의 노

란색 표지가 헤어지도록 읽고 또 읽었다.

## 멀티미디어적 기능으로 진화해

나는 이른바 386세대다. 아마도 이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리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이 요즘도 그대로 재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요즘세상에서 읽을 거리로 대접받으려면,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 언제든지 다른 정보에 즉각 접근할 수 있으며, 사진-그림-음향 그리고 동영상까지 한자리에서 제공되는 그야말로 멀티미디어라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세상의 독자는 더 이상 라이거의 사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전자백과사전을 통해 라이거의 울음소리와 뛰어다니는 모습을 확인해야만 한다. 오래된 백과사전 속에서 그저 낡은 흑백사진으로만 존재하던 마틴 루터 킹은 이제 전자백과사전의 한 면에서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그의 유명한 연설을 그대로 쏟아낸다. 그의 일대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은 모두 하이퍼링크로 처리돼 있다. 그뿐 아니다. King목사의 저작과 그에 관한 저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점의 목록까지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이른바 디지털시대의 백과사전은 내 추억 속의 그것과는 이미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출판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 가운데 하나로 백과사전에 나타난 변화를 드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참고정보원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백과사전이 전자출판을 선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가령 전자출판의 일반적 약점으로 꼽히는 가격경쟁력과 휴대성의 문제는 백과사전 출판의 경우에는 이미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백과사전의 전자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책자형에 비해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며, 전자백과사전은 색인의 세밀함이나 상호참조의 활용 측면에서 그 이전의 책자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 더욱이 무선인터넷을 통하면 PDA나 휴대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어 휴대 또한 간편하기 때문에, 이들 포스트(Post)-PC 매체에 관련 콘텐츠를 결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백과사전에서 전자화의 출발은 1985년 그롤리어사(Grolier)가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최초의 CD-롬 백과사전을 내놓은 것을 기점으로 본다. 그 이래 약 10여년 동안 이 분야의 발전은 가히 눈부시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ncarta 2001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은 3만6천 이상의 항목에 2천개 가량의 오디오클립, 1만1천개 정도의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120개 이상의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2만개 가량의

인터넷사이트와 링크돼 있다. 실제로 이 CD-롬은 3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향상 서점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DVD-롬의 화려한 영상과 음향을 즐길 수도 있다. 또 대부분의 인터넷 검색 엔진들은 이미 각각의 백과사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5만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백과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www.encyclopedia.com)도 생겨나고 있다. 그야말로 '인사이클로피디어'(encyberpedia)라는 신조어가 무색하지 않다.

### 정보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변화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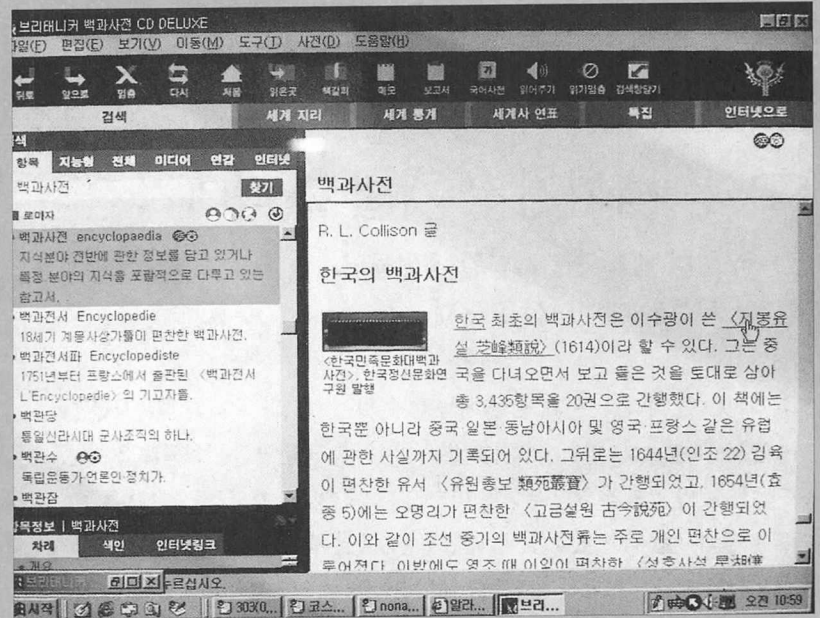
전자형태 백과사전의 구조적 강점은 역시 하이퍼텍스트의 구현, 그리고 나아가 멀티미디어로의 연장(extension)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원래 하이퍼텍스트는 1965년 미국의 테드 넬슨(Ted Nelson)이 CAI(Computer Aided Instruction)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옵션을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테스트하며 학습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후 브라운대 등의 프로젝트용으로만 사용됐으나, 월드와이드웹(WWW)의 일반화와 더불어 급속도로 확산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디지털문명의 총아로 일컫는 하이퍼텍스트의 세계와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소프트웨어 독점 등을 둘러싼 전자제국주의 등에 관한 문제 등은 현재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쉽게 어떤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하이퍼텍스트로 대표되는 디지털문명을 책읽기의 문제와 연결시켜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하이퍼텍스트가 독자의 개념을 변화시킨다는 점일 것이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 문서에서 저 문서로, 이 사이트에서 저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기술은 독자의 사고와 읽기 유형을 변화시킨다. 우선, 하이퍼텍스트는 문서의 어느 부분이나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매체에 고유한 단선형(linear) 사고를 넘어, 방사형(multi-linear)의 구조를 지니게 한다. 즉, 인쇄매체와 같이 문장·단락·페이지와 같은 '책'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 규정된 순서가 하이퍼텍스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하이퍼텍스트는 이동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보 수용자의 선택능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력 관계가 뒤집힐 수도 있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세계와 같은 책임과 사회적 위치와 같은 감정의 억제장치가 발달돼 있지 않다는 점에 자극받아 더욱 심화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쇄매체는 시공간을 초월해 똑같은 텍스트를 확산시킴으로써 동일한 경험세계를 복제하며, 독자들은 일종의 경험세계를 공유한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는 독자를 개인화한다. 하이퍼텍스트라는 도로 위에 올라서면 종착지점이 어디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인쇄자료는 한권을 읽으면 일단락되지만, 하이퍼텍스트의 경우는 끝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전자미로'(electronic labyrinth)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가령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몇 군데에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상해 보라. 만약 내가 이 글을 하이퍼텍스트로 썼다면 독자들은 지금쯤 킹목사의 연설을 동영상으로 보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이 글을 떠나 다른 웹사이트를 여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디지털화가 흡족하지만은 않는 이유

디지털의 신세계는 이미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있다. 디지털 문명은 인간의 문화적 정서를 변화시키고 관찰, 인쇄보다는 모험과 가능성에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 이들에게 이 신세계는 무한한



미래의 백과사전은 하이퍼텍스트를 구현하는 멀티미디어 매체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독자의 개념이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은 CD-롬으로 제작된 한 백과사전의 '백과사전' 항목.

가능성의 공간이다. 거미줄(web)과도 같은 텍스트의 중첩구조 속에서 독자들은 좀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에 대한 지식'이 읽을거리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의 웹사이트에서 백과사전 검색은 포털서비스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곧 백과사전 한권을 뿔아 중간 어느 페이지쯤을 펼쳐 한두 시간쯤 통독하며, 그 안에 존재하는 세상에 감탄하던 것은 추억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문명의 현란함에 감탄하면서도 그것이 마냥 흡족하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